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창세기 12:10-20
2026 년 9 월 6 일 오전 11 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 주여 도우소서 >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 있었으니,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기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더니**”(창 12:8).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온 후 다시 여호와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창 13:4). 그런데 그 두 사건 사이에는 아브람이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기근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내 생각으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기근을 바라보며 자기 판단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제 아브람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내 사래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창 12:11-12). 여러분, 지금 아브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낯선 가나안 땅까지 왔던 그 아브람의 마음에 어느새 죽음의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죽음과 질병과 재앙에 대한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알 수 없는 것은 두렵습니다. 무엇이 닥칠지 알면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지만, 알 수 없을 때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 애굽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조금 덜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애굽은 아브람에게 낯선 땅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땅에 가까이 갈수록 아브람의 두려움은 점점 커져 갔습니다. 특히 아브람에게는 아름다운 아내 사래가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애굽 사람들이 사래를 보고 자신을 죽인 다음 사래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이 아브람을 죽이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사래를 빼앗겠다고 위협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람의 마음속에서 먼저 두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실제보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아직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나를 해칠 사람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지금 아브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애굽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위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아브람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익숙한 하란을 떠나 어디인지도 모르는 땅을 향해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아브람이 왜 애굽 앞에서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차이는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낯선 땅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애굽 사람들이 더 크게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람이 생각해 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아브람은 아내 사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13 절). 아브람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꾀로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모습입니까? 아브람은 애굽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지도 몰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애굽인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을 믿는 자신은 진실을 감추고 사람을 속이려 합니다. 세상을 의심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세상보다 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2. 거짓으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의 교회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세상을 향해 “말세다. 세상이 악해졌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거짓을 비판하고, 세상의 불의를 책망합니다. 물론 교회는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서 더 정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더 신뢰할 수 있고, 저 사람에게는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세상을 비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거짓과 욕심과 불의가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에는 적어도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지금부터 약 15 년 전의 일입니다. 달라스 St. Mark Summer Camp 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서 어머니 두 명이 자녀들과 함께 저희 집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 1 학년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그 아이는 만나자마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성당에 다니는데, 아저씨는 왜 교회 같은 데를 다니세요?” “왜 교회를 다니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왜 교회 같은 데를 다니세요?”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이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아직 세상을 깊이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라면,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은 아브람은 애굽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브람 역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브람이 드디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14 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아브람은 사래에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사래가 “심히 아리따운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사래가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보기 드문 이국적인 모습의 여인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은 아브람이 두려워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니라”(15 절). 사래에 대한 소문은 마침내 바로의 궁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바로의 고관들이 사래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바로에게 말했고, 결국 사래는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 갑니다.

사래가 바로의 궁으로 끌려가는 동안, 아브람이 무엇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사래를 붙잡았다는 기록도 없고, 바로 앞에 나아가 “사실 이 여인은 내 아내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커질수록 그 진실을 바로잡을 용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의 무서움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데는 순간의 용기만 있으면 되지만, 거짓말을 바로잡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을 말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작은 거짓 하나가 또 다른 침묵을 낳고, 그 침묵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까지 고통을 가져옵니다.

아브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 사래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자신은 안전해졌지만 사래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원치 않게 바로의 후궁이 되는 위험입니다. 바로는 사래를 취한 대가로 아브람에 큰 재물을 하사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16 절). 아브람의 계획은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목숨도 건졌고,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3. 세상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브람은 재물을 얻었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는데 아내 사래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재산은 늘었지만 가정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곁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잠 10:22).

아브람은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다 오히려 아내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17 절). 아브람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감추어졌던 진실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바로는 사래가 아브람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브람을 불러 책망합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18-19 상반절).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브람이 바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가 아브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람에게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장면입니까? 아브람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 주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람을 통해 바로가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아브람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 주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람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아브람이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람은 사래를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래를 지키셨습니다. 아브람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3 장 4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창 13:4). 아브람은 다시 제단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아브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나은 판단력이나 더 많은 재산이나 더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기근은 찾아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혹시 잘못된 길에 들어섰습니까? 다시 제단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